

오월특별전

시민 문화공간 '메이홀' 김봉준 초청 '오월의 빛' 전

자생적 시민문화공간 '메이홀'에서 5·18 즈음이면 열리는 '오월 특별전'은 늘 화제가 됐다. 지금까지 홍성담·임옥상·박봉룡·박재동·정영창 등 쟁쟁한 작가들이 '오월'과 한국의 현대사를 다양한 작품으로 풀어냈다.

올해는 판화작가 김봉준을 초청해 오는 31일까지 '오월의 빛'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가 광주에서 여는 첫 개인전이다. 전시에서는 빛의 그의 판화 작품부터 역사 풍속도,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과 함께 신작 '오월의 통곡' 등 지금까지 제작해온 오월 관련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특히 따스한 느낌의 채색 목판화는 관람객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한국민중미술계를 대표하는 김 작가는 초창기부터 진행한 판화 작업과 평면회화, 붓그림 등 다채로운 장르로 민중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현대 미술에서 조각을 전공한 그는 한국 민중미술의 큰 축인 '두량'을 창립, 목판화 작업을 비롯해 벽화, 길거리그림, 붓그림, 한글 쓰기 등 민중미술을 주도했다. 1990년 대 생태주의 문화에 눈뜨면서 사그는 신화로 확대했고, 작업실이 있는 강원도 문막읍 진발마을에 '오랜미래 신화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오월 광주'와도 인연이 있다. 대학 졸업 후 출판사 장비에 근무했던 그는 5·18 당시 탈춤·풍물패

와 함께 광주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수배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전시는 3개 층에서 이뤄진다. 2층에서는 김봉준의 '판화 40년 연대기'를 만난다. 그의 첫 목판화 작품인 1979년 작 '기억의 가족'은 투박한 채색 목판화의 매력과 함께 무뎠던 가족의 표정이 미소를 머금게 한다. 두 아이의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그가 심취했던 탈춤 등 전통문화의 역동적 풍경, 시골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작품 등에 눈길이 머문다.

강력한 사회적 발언을 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오월 광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화 작품과 노동현장의 모습, 통일해원도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은 장지에 붓으로 그린 '역사 풍속화' 시리즈다. 2016년 촛불현장의 현장부터 사드 반대 집회 현장 등 현대사의 순간 순간을 다양한 인물군상과 현장 모습으로 생생하게 포착해 생생함을 전한다. 4층은 신화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이다. 현대사의 역동적인 사건을 강렬하게 표현해낸 '신화의 나라' 두 작품은 전시작 벽면을 가득 채운 대작으로 눈길을 끈다.

이태호 평론가는 "김봉준이 추구하는 생태와 신화와 평화는 저항과 민주주의의 공동체, 치유 등 '5월 광주'의 정신과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18일 오후 5시에는 '100인의 오월정신



'어머니와 두 아들'

릴레이 아트'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과 하늘공원 가는 길에서 '오월 빛' 퍼포먼스' 행사가 열리며 19일(오후 4시) 메이홀에서는 김봉준·이상호·주홍 작가와 임종영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또 전시 기간 중에는 매일 리반(음악), 황현성(영상), 김봉준(미술)의 작품이 어우러진 영상 '오월 울음'이 상영된다. 월요일 휴관. 관람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문의 010-6791-80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월의 통곡'

임을 위한 행진곡

강진아트홀서 무료공연

김종률·소리모아 14일 공연

17일 전인권·18일 크라이넛 무대



크라이넛

5월 광주를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나는 공연이 열린다.

강진아트홀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돼 '오색오감-임을 위한 행진곡'을 14일부터 18일(오후 7시, 18일만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전인권

이번 프로젝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각자의 색깔로 연주하며, 음악으로 5월 영령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이자 고향이 강진인 김종률과 소리모아는 14일 첫무대를 장식한다. 김종률은 1979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은 자작곡 '영랑과 강진'을 40년 만에 고향에서 부르며 소리모아는 '직녀에게' '금남로 사랑' 등 광주와 함께한 노래를 부른다.

15일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양상블 만'의 클래식 연주로 만나며 16일에는 국악그룹 '프로젝트양상블'이 '1980, 님이여' 공연을 통해 국악으로 재해석해 들려준다.

17일에는 시대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희망을 노래하는 '전인권밴드 -격정말야요 그대'가 장식하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젊음과 패기로 세상을 호령하는 '크라이넛-말달리자'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소통의 무대로 만들고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강진군이 기획·제작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무료 관람. 공연 30분 전 선착순 입장.문의 061-430-3973.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월특별전

광주민중미술인협회, 5·18 39주년 임정 100년 기념

광주 민중미술을 주도한 (사)광주민중미술인협회(회장 박태규)는 31년 동안 '오월전'을 열고 있다.

5·18 민주항쟁 39주년과 더불어 100주년을 맞은 3·1만세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올해 전시는 본전시와 특별전으로 나눠 진행한다.

노주일 작가가 기획단장을 맡은 본전시 '빨간 메아리'전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광주·전남·전북·경남·제주에서 활동하는 민중미술인협회 소속 작가 49명이 참여해 평면, 입체, 설치, 사진, 영상 등 모두 55점을 선보인다.

언젠가부터 '불온한 색'으로 인식돼온 '빨간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견어내기 위해 마련된 '빨간 메아리'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 빨강이 문화 청산, 사상과 표현의 완전한 자유를 주제로 작가들이 자유롭게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국가 폭력의 본질을 드러내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정신,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대동세상, 삶의 가치가

풍요롭게 넘실거리는 세상을 그려낸 작품을 출품했다.

권산·김우성·김정환·박태규·서동환·이상호·위재환·황의성 작가 등이 참여했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4시에 열리며 18일에는 전일빌딩, 국립 5·18민주묘지 등 사적지를 탐방한다.

조정대 작가가 전시감독을 맡은 광주민중미술인협회 특별전도 열린다.

10일부터 26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길'전에는 광주민중미술인협회 작가 20명이 출품했다. 이번 전시는 30여 년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민중미술 작가들이 시기별로 중요하게 다룬 주제를 통해 격동의 현대사와 마주한 민중미술의 위치를 되돌아보는 전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민중미술작가군 중 2세대 이후 작가들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소개, 변화하는 민중미술의 현재를 보여준다.

참여작가는 김병택·김화순·노여운·노주일·박철우·위재환·이사범·정희송·최병진·최재덕·김희상 작가 등이다.

개막식은 오는 10일 오후 6시에 열린다. 문의 062-236-051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빨간 메아리'전, 14~28일 은암미술관

작가 49명 참여, 평면·입체·설치 등 55점 전시

'한·길'전, 10~26일 양림미술관

작가 20명 참여, 현대사 마주한 민중미술 보여줘



김화순 작 '이제 댄스타임'

Advertisement for IPALG waterproofing services, featuring various building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H.P., Mokpo, Suncheon, and Gwangyang.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highlighting their history since 1982, international presence, and various award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Seosik, Seoul, and Suncheon.